

시선집 6 종 (그 중 고전시 3, 현대시 3)  
구비 문학 5 종  
합계 22 종

현대 소설 대표적 작가와 작품으로 김남천의 「대하」(1947, 1950 재판), 최서해의 「단편 소설집」(1962), 한말숙의 「아름다운 영가」(1997), 김동인, 나도향, 계용묵, 황순원, 강신재, 황석영 등 13명의 현대 작가의 대표작품을 포함하는 「한국 현대 단편소설집」(1999) 등을 언급할 만한 것이고 또 고전 작품의 실례로 김시습의 「금오신화」(1973), 김만중의 「사씨남정기」(1964), 「구운몽」(1992), 「인현왕후전과 한중록」(1997), 「고전 소설집」(홍길동전, 조웅전, 장국진전, 1992) 등을 들 수 있다.

시문학 분야에서는 3권의 「시조집」(1958, 1967, 1976), 「한국 현대 시선집」(1996), 한용운의 「님의 침묵」(1998) 등이 출판되었으며 구비 문학으로서 2권의 「한국 신화 전설집」(1978, 1983), 「한국 동화집」 3권 등이 발간됐다.

그 외 Nový Orient(신 동양) 월간 잡지, 「세계 문학」지, 동아시아 문학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금년에 창간한 「文」이라는 잡지, 각종 신문, 체코 방송국을 통해서 적지 않은 개별적 소형 작품들도 발간, 보급되었다.

오래지 않아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 「시씨남정기」의 재판, 「고전 시선집」(시조, 가사) 등이 나올 것이 예견된다. 예술문학과 영화문학의 번역 사업에 적극 종사한 번역자로 A. Pultr, J. Bařinka, V. Pucek, J. M. Gruberová, M. Buřková, M. Löwensteinová, 협력하는 직업적 시인으로 O. Vyhřídál, P. Borkovec 등을 들 수 있다.

참조: 블라지미르 푸체크: 체코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의 개관(선택과 출판의 문제점).

외국문학 Contemporary World Literature, 1993년 여름, 제35호, 340-358 pp.

우리 학생들의 현지 언어 실습이나 교원들의 연구 fellowship 보장, 서적 기증, 문학 번역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귀중한 도움을 주신 여러 대학과 재단(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재단, 동승학술재단, 대산재단 등)과 개별적

교수, 학자들에게 제 자신과 우리 한국학과 일동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재단 연혁(4)

- 1999년 4월 1일(목) 재단 1999년도 학술지원 공고 발송. 360여 개처. 5월 31일 신청 마감.
- 1999년 5월 21일(금) 제3회 동승학술상(공로자) 수상 후보자 추천 및 심의.
- 1999년 6월 14일(월) 제3회 동승학술상 심사위원 위촉. 7월 22일(목) 심사위원회 수상후보 선정, 재단 이사장에게 추천.
- 1999년 7월 15일(목) 제2회 동승학술 연구비, 제3회 동승학술 조성비 신청자에 대한 면담 심사.
- 1999년 7월 29일(목) 오후 6:30, 서울 동승동 한식 수정궁, 제2회 임원회 개최. 99년도 동승학술상, 학술 지원, 제3회 시상식 절차 등 심의 결정. 9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
- 1999년 9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제3회 동승학술상 시상식. 수상자 마틴(Samuel E. Martin) 명예교수 외 9명. 특별 강연: 푸체크 체코 까렐대학 교수.
- 1999년 11월 29일(월) 오후 6:30, 서울 동승동 한식 수정궁, 99년도 제3회 임원회 개최. 2000년 사업계획 심의, 金敏洙 이사장, 李元植 상임이사, 丁濬燮 이사 연임 결정.
- 1999년 12월 24일(금) 적립금 2억원 기본재산으로 증자,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승인. 2000년 1월 17일(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등기. 재단 기본재산 늘어 12억원.
- 2000년 2월 28일(월) 오후 6시, 서울 동승동 한식 수정궁, 2000년도 제1회 임원회 개최.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사업 계획 심의. 李升九 감사 연임 결정.
- 2000년 3월 31일(금) (財) 東崇學術財團消息 제4호 발행. 16면. 제1~4호 합본.

발행·편집인 김민수  
(재)동승학술재단  
韓國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 50-13  
☎ (02)910-4812



2000년 3월 31일 발행

제 4 호  
인쇄 도서출판 두솔  
☎ 313-3116

민족학술의 진흥 : 2000년도 학술 지원

(財)東崇學術財團 2000년도 학술 지원 공고

I. 제4회 동승학술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이 상은 동승학술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내의 우리 민족학술의 연구에 다년간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민족학술의 선양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선정하여 포상함을 목적으로 함.

- 1. 시상 부문 : 국어학 부문
- 2. 시상 인원 : 약간명
- 3. 시상 내용 : 상장 및 연구비 2,000만원
- 4. 시상 대상 : 국내의 학자로서 연구의 업적이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분.
- 5. 후보자 추천 방법 : 추천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인비로 제출함.
  - 가. 추천자 : 국내외의 ① 관계 학술 단체장 또는 대학 총(학)장, ② 사계의 원로 학자, ③ 본 재단 수상자 또는 임원.
  - 나. 제출 서류 : 다음과 같되,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 추천서 : 소정양식, 원본 포함 5부
    - 2) 추천 업적 : 대표 저서 및 논문, 서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은 각 5부 첨부함.
  - 다. 접수 마감 : 2000년 5월 31일
  - 라. 서류 접수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6. 서식 배포 및 접수처  
韓國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50-13 (재) 동승학술재단 전화 (02) 910-4812
- 7. 수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함.
  - 가. 연구에 현저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규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함.
  - 나. 선양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 및 연구비는 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함.
- 8. 시상일 : 2000년 9월 15(금) 예정.

II. 제1회 동승학술연구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이 상은 동승학술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내의 유능한 중견 학자의 독보적 연구 업적을 칭송함으로써 우리 민족학술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1. 시상 부문 : 국어학 부문

- 2. 시상 인원 : 약간명
- 3. 시상 내용 : 상장 및 연구비 700만원 이내
- 4. 시상 대상 : 국내외 중견 학자로서 연구 업적이 특출하다고 인정되는 분.
- 5. 후보자 추천 방법 : 추천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인비로 제출함.
  - 가. 추천자 : 국내외의 ① 관계 학술 단체장 또는 대학 총(학)장, ② 사계의 원로 학자, ③ 본 재단 수상자 또는 임원.
  - 나. 제출 서류 : 다음과 같되,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 추천서 : 소정양식, 원본 포함 5부
    - 2) 추천 업적 : 최근 5년 이내의 저서 및 논문, 서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은 각 5부 첨부함.
  - 다. 접수 마감 : 2000년 5월 31일
  - 라. 제출 방법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6. 수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준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 7. 시상일 : 2000년 9월 15(금) 예정.

III. 제1회 동승학술논문상 수상후보자 추천요강

이 상상은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로 국내 대학원의 특출하고 우수한 학위 논문을 정선하여 칭양함으로써 학술 연구의 질적 향상과 뛰어난 신진 학자의 배성, 나아가 우리 민족학술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1. 시상 부문 : 국어학/의학 마취 부문
- 2. 시상 인원 : 각 약간명
- 3. 시상 내용 : 상장 및 연구비 300~500만원
- 4. 시상 대상 : 주로 대학원의 특출한 학위 논문(혹은 획기적인 학술 논문).
- 5. 후보자 추천 방법 : 추천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인비로 제출함.
  - 가. 추천자 : 국내 ① 관계 학술 단체장 또는 대학원장, ② 사계 원로 학자, ③ 해당 논문 지도 교수 또는 심사 위원.
  - 나. 제출 서류 : 다음과 같되,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치 않음.
    - 1) 추천서 : 소정양식, 원본 포함 5부
    - 2) 추천 논문 : 최근 5년 이내에 수위한 논문. 서

- 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은 각 5부 첨부함.
- 다. 접수 마감 : 2000년 5월 31일
- 라. 제출 방법 : 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6. 수상자 선정 : 본 재단의 규정에 준하여 수상자를 선정함.
- 7. 시상일 : 2000년 9월 15(금) 예정.

IV. 제4회 동승학술 발간비 지원 신청요강

이 지원은 동승학술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내 학회 및 학술 단체의 학술지 발간비를 지원함으로써 학회 학술의 향상 및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1. 지원 부문 : 국어학/의학 부문
- 2. 지원 내용
  - 가. 지원 대상: 발행일 기준으로 2000년 9월- 2001년 8월 사이에 발간될 정기 간행 학술지.
  - 나. 지원 금액: 학회의 학술지 발행 실적을 기준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함.
- 3. 신청 방법 : 학회장 명의로 재단에 신청함.

- 가. 신청 자격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학회.
  - 1)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수가 100명 이상.
  - 2) 전임강사 이상 교수 회원의 소속 대학 분표수가 15개 대학 이상.
  - 3)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학회지.
  - 4) 투고 논문을 엄격히 심사하여 제도적으로 그 질적 향상과 발전이 기대되는 학회지.
- 나.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소정양식) : 1부
- 다. 접수 마감 : 2000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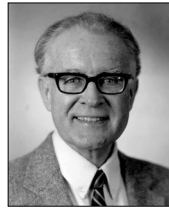
4. 지원 단체 선정

- 가. 선정 절차 : ① 학회의 일반현황 조사표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학술활동 실적을 평가, ② 학술지원 단체의 지원 실적 등을 참작, ③ 재단 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의 결정함.
- 나.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전액을 해당 학회 온라인으로 송금함.
- 다. 동일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될 수 있음.

(財) 東崇學術財團 1999년도 학술 지원

I. 제3회 동승학술상 시상

수상자: 마틴(Samuel E. Martin) 1924년생.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 역임 명예교수. Ph.D.(예일대). 전공 언어학, 한국어학. 주저 *A Reference Korean Grammar* (1992). 추천 경원대 교수 李光政.



Samuel E. Martin

상 장: 第3號 東崇學術賞 위의 사람은 우리말 연구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을 위하여 그 言語構造의 糾明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그 言語學的 接近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民族學術의 發展에 현저한 功績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第3回 東崇學術賞을 수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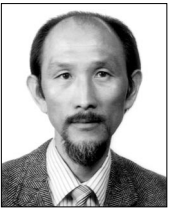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루코프(Fred Lukoff) 1920년생.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 역임 명예교수. Ph.D.(펜실베이니아대). 전공 언어학, 한국어학. 주저 *A First Reader in Korean Writing in Mixed Scrip* (1982). 추천 경원대 교수 李光政.



Fred Lukoff

상 장: 제99-2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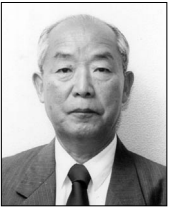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故 宋錫重 1927년생. 미국 미시간대학 교수 역임 명예교수. Ph.D.(인디애나대). 전공 언어학, 한국어학. 주저 「한국어 문법의 새조명」 (1993). 추천 경원대 교수 李光政.



故 宋錫重

상 장: 제99-3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추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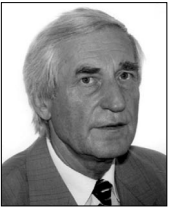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趙承福 1922년생. 스웨덴 스톡홀름대학 교수 역임 명예교수. 언어학박사(웁살라대). 전공 동양언어학. 주저 *A Phonological Study of Korean with a Historical Analysis* (1967). 추천 고려대 교수 崔鎬哲.



趙承福

상 장: 제99-4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푸체크(Vladimir Pucek) 1933년생. 체코 찰스대학 교수. 철학박사(찰스대학). 전공 한국어학. 주저 *Lexicology of Korean Langage* (1997). 추천 고려대 교수 崔鎬哲.



Vladimir Pucek

상 장: 제99-5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콘체비치(Lev Rafailovich Kontsevich) 1930년생. 러시아 과학원 교수 역임. 문학박사(소련과학원). 전공 한국어학. 주저 *Textology and Paleography of the First Monument of the Korean Writing, Hunminchongum* (1965). 추천 고려대 교수 崔鎬哲.



Lev R. Kontsevich

상 장: 제99-6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宣德五 1933년생. 中國社會科學院 교수 역임. 北京大學 研究生院. 전공 조선어학. 주저 「朝鮮語基礎語法」. 추천 순천향대 교수 李元植.



宣德五

상 장: 제99-7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崔允甲 1930년생. 中國延邊大學 교수 역임. 延邊大學 朝鮮語文學部. 전공 조선어학. 주저 「중세조선어문법」(1987). 추천 순천향대 교수 李元植.



崔允甲

상 장: 제99-8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金東俊 1924년생. 日本 神田外語大 교수 역임 명예교수. 문학박사(국민대). 전공 국어학. 주저 「韓國語入門」(1983). 추천 순천향대 교수 李元植.



金東俊

상 장: 제99-9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수상자: 東崇學術功勞賞 梅田博之 1931년생. 日本 麗澤大學 교수. 東京大學 言語學科. 문학박사(계명대). 전공 언어학, 한국어학. 주저 「韓國語의 音聲學的 研究」(1980). 추천 순천향대 교수 李元植.



梅田博之

상 장: 제99-10호 賞狀 위의 사람은 우리말의 研究部門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말의 學術的 發展과 國際的 普及을 위하여 한결같이 전심전력 진기력한 분으로서 우리 民族學術의 宣揚에 지대한 功勞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賞을 수여함.

II. 제2회 동송학술 연구비 지원

수혜자: 국어학 2명  
연구비: 각 700만원

- 李相億 1944년생. 서울 서울大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 국어의 계량언어학적 접근 연구
- 金智弘 1957년생. 진주 慶尙大 국어교육과 교수. 주제: 어휘의 의미표상에 대한 연구

III. 제3회 동송학술 조성비 지원

수혜자: 국어학 4명, 마취학 2명  
연구비: 각 350만원

- 黃善燁 1970년생. 서울대 박사과정 국어학 李賢熙 지도
- 金泰鏡 1969년생. 한양대 박사과정 국어학 李明奎 지도
- 張馨實 1969년생. 고려대 박사과정 국어학 鄭光

지도

- 李勇 1966년생.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국어학 成蒼徹 지도
- 金智燕 1967년생. 고려대 박사과정 마취학 임혜자 지도
- 朴仁淑 1968년생. 고려대 박사과정 마취학 장성호 지도

IV. 제3회 동송학술 발간비 지원

수혜자: 3개 단체  
발간비: 총 1,400만원

- 國語學會 회장 宋敏(국민대). 1959년 설립. 「國語學」 33-34호 발간
- 口訣學會 회장 高永根(서울대). 1988년 설립. 「口訣研究」 5-6호 발간
- 大韓再活醫學會 회장 전세일(연세대). 1972년 설립. 「대한재활의학회지」 23권 발간

1999년도 제3회 동송학술상 시상식

1999. 9. 17(금). 오후 2:00~3: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개회사: 사회(재단 사무국장)
- 국민 의례: 사회
- 경과 보고: 사회
- 상장 및 연구비 수여: 재단 이사장
- 시상자 인사: 재단 이사장
- 축사: 兪昌均 박사
- 수상자 소감
- 특별 강연
- 기념 촬영



인사 말씀

동송학술재단 이사장  
金敏洙

수상자 소감

마틴(S. E. Martin) (미국)

Dear Professor Kim:

I deeply appreciate the honor that the Foundation has decided to award in recognition of my work on the Korean language. And I appreciate the care with which the evaluation committee has selected the ten scholars to be recognized, for among them are many old friends whose stimulating research and kind encouragement have been helpful to me through the years. I am particularly moved to find that the name of the late Song Seok-joong(Sekcwung) is included among the group, for he was a vigorous and humane scholar of great acumen and integrity who accomplished work of much value before his untimely death.

When I first encountered the Korean language over fifty years ago I was immediately impressed with the many interesting linguistic features and problems that it offers.

1999년 9월 17일

Through the years I have moved from descriptive and pedagogical studies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work that will continue for the rest of my life. The growth of interest in Korean linguistics, both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has been most gratifying. There were very few students of the Korean language at the time we set up the Yale program, and at one time we had to discontinue the practical courses in the language for lack of support. But I am happy to report that the courses were later revived with great success, and the number of students have come to rival and even surpass those of other East Asian languages taught at Yale. I am also delighted that some of the Yale students in general linguistics courses, and some of those studying other East Asian languages, developed an interest in Korean, resulting in several distinguished doctoral dissertations. Other universities have enjoyed similar growth in the field of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wo annual meetings devoted to problems in Korean and Japanese linguistics (one at Harvard and one at UCLA). The interest is not confined to America.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storical Linguistics held last month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there was a workshop on Korean and Japanese linguistics that attracted also participants from Europe. I have watched with much pleasure the growth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and learned much from the papers presented at its biennial meetings.

It is my hope that the Foundation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work of scholars in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for there are many fine younger people who deserve encouragement as they pursue their research into the language and culture of Korea. I want them to enjoy as much pleasure from their work as I have found in mine.

Samuel E. Martin, Emeritus Professor of Linguistics,  
Yale University  
home address: 14720 SE 22nd Circle, Vancouver,  
WA 98683, USA  
e-mail: semartin@pacifier.com

루코프(Fred Lukoff) (미국)

제가 동승학술재단의 수상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제게는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영광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 이 상이 저에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과 저의 경력 모두에 있어서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 군 병사였던 1944년 초에 야전 미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한국어 회화 교습서를 만들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한국에 대한 저의 운명적인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언어학 인력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대학 2학년생으로 미보병사단에 징집되었던 동양학 전공의 저에게 그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에 저는 극동 지역이 아니라 동양의 서부 지역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장차 그 방면 공부에 주력하고자 했었는데, 아마도 사령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제 사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일이 저의 학문의 길, 저의 인생 향로를 결정지은 것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여 학교로 돌아가서는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현대 한국어를 연구하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 연세대학에 객원 교수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1956년 초였습니다. 이 때 한국에서는 기술-구조언어학 연구가 막 시작되던 때였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 또한 제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결국 저의 한국 체류는 196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초기 단계에 있던 한국의 언어학이 오늘날 그 여러분에 걸쳐 지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많은 학생, 동료, 동지들을 만났고, 학문 세계 밖의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며, 마치 고향에라도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 때 만난 사람들 중에는 평생에 걸쳐, 지금까지도 교유하는 친구가 있

고, 33년 동안을 함께 살아오고 있는, 당시에는 학생이었던 저의 아내를 연세 캠퍼스에서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저의 한국과의 그 인연은 저의 학문 생활, 교육 관계, 가정 생활 모두가 한국,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즐겁게 얽히고 설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오로지 고맙기만 할 뿐입니다. (1999. 8. 시애틀에서) (연세대 남기심 옮김)

고 송석중(대리 문택자 부인) (미국)

송석중 교수께서 타계하신지 삼년이 지난 오늘, 명예로운 동승학술 공로상을 수여받고 또 그 아내인 제가 대신하여 수상 소감을 쓰게 되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송 교수께서 생존하셨더라면 적절한 인사 말씀을 올렸겠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언어학자의 아내이면서도 언어학이나 학국어에 대한 조예가 없고, 또 글 재주도 없으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송 교수는 일찍 연희대학 시절에 영문학을 전공했었는데, 대학원에서 미국 언어학자 Lukoff 교수를 통해 언어학을 소개받고 크게 흥미를 느껴, 미국에 온 후 Indiana 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새로이 한국어를 언어학 이론과 방식 태두리 안에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5년간 Michigan 주립대학교에서 일반 언어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한편으로 한국어 문법 연구를 열심히 계속했고, 결과로 30여 편의 학국어에 관한 논문을 영문으로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언어학 학술지와 학술 대회에서 발표했습니다.

1988년에 이 논문들을 정리 확장하여 *Explorations in Korean syntax and semantics*(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출판부)란 제목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1993년엔 그 책을 한국 안에서 널리 읽히기 위해 한국말로 옮겨서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서울 지식산업사)이란 표제로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말 구조엔 특이성 또는 예외 현상이 많아 배우기 쉽지 않다는 말을 듣는데, 전통

한국어 문법은 이 복잡한 언어 현상을 해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송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문제되는 현상들을 골라 현대 언어학 이론을 적용시켜 분석하고, 겉으로 불규칙하게 보이는 문장들 깊숙이 잠재하는 규칙성을 밝혀 내어 체계적으로 문법을 기술했습니다. 또한 현대 언어학 이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많은 실례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일생 정렬을 쏟은 연구 결과가 앞으로 한국 언어학 학생, 학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던져 주게 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 송석중 교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동승학술 공로상을 주신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임원들과, 또 추천해 주신 이광정 경원대학교 대학원장님께 수상인과 유가족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민족 문화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동승학술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조승복(趙承福) (스웨덴)

지난 4월에 한 국어학자한테서 한국어 연구에 끼친 업적에 보답하는 공로상 수락 여부를 문의하여 온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공로상 수여 목적이 고귀하게 보였습니다. 문화상으로는 여러 가지 상이 상상되고 있겠지만, 민족 생존의 핵심인 말에 관한 연구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점에서는 다른 문화상과는 차원이 다른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과거 46년(1952-99) 동안 우리 민족어를 여러 각도로 배우며 연구하여 왔습니다. 민족 생존에 미치고 있는 민족어의 영향을 생각하며, 공로상의 독특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듯 한 감이 났습니다.

필자는 대학 시절에 서양 철학을 전공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품고 있는 인생관과 민족 생존관에 따라 그리 선택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는 길의 하나는 우리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넓히고 깊이며 행사하는데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략자 일본의 주선이나 해석을 통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학문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 살상의 한국전쟁을 계기로 서양 철학에서 일반 언어학과 비교 언어학으로 전공을 전환하였습니다. 전환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이익 보호를 위한 형제 살상의 참전을 막기 위하여 반전 연설을 하고 다닐 때, 자기 민족 문화 유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반전 연설은 한국전쟁이 휴전에 들어온 후부터는 통일 연설로 전개되어 갔습니다. 우리말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의 말들도 다시 과학적(즉 언어학적)으로 배우며 연구하여야 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민족으로 생존하여 나가려면 먼저 자기 문화 유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리라고 상상하였습니다.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자기 고유 문화를 인류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상상되기 때문입니다.

대학 현장에서 물러나서부터는 과거 근 40년 동안 생각하여온 민족 문화유산 공용과 언어 통일에 의거한 남북 양쪽 문화 생활에 보이는 동질성을 찾아 연구하는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모임은 많은 학자들의 지혜와 열정으로 출발하여 성장하여 왔습니다. 변천곡절을 통하여, 지금은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약칭, 同研會)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단 정치에 가담함이 없이 민족 전체를 기반으로 한 입장에서 통일 운동을 추진시키고 있는 학자들을 천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작까지도 일반 독자층에서 제외하려는 냉전 정신이 아직도 한국 정치 문화에 잠재하고 있는 이 때에 통일에 헌신 중 사하고 있는 학도의 한 사람인 필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동승학술재단의 용감한 정의감에는 깊은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문화유산 공용과 통일을 민족 통일의 기반으로 닦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동승학술재단의 공로상이 적지 않은 정신적 격려가 될 것은 다언(多言)의 설명이 필요도 없이 명확합니다.

푸체크(V. Pucek) (체코)

존경하는 동승학술재단 이사장 김민수 교수님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동승학술재단이 한국 어문 연구 분야와 우리 나라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 제가 달성한 보잘 것 없는 결과를 높이 평가하여 동승학술상(공로상 부분) 수상자로 본인을 선정하고 또 이 영광스러운 시상식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와 감동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재단 사무국에서 보내어 주신 김민수 이사장의 통지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에 가면 거기서 이미 만나고 큰 도움을 주신 여러 유명한 한국 어문학자(그 중 개별적으로 사귀는 동료와 구면 친구)들을 다시 상봉할 수 있고 또 이 때까지 만나지 못해도 그들의 업적과 저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름난 학자를 만나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로상을 받게 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우리 나라 한국학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고 지난 50년 동안 체험한 일과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1950년에 A. Pultr 교수가 까렐대학교(Charles University)에서 조선학과라는 새로운 정규 전공을 창시한 뒤 본인이 1952년에 이 학과 입학..., 1955년에 실습생으로 북한을 첫 방문..., 분단된 나라의 참사를 목격..., 사상과 정치의 차이로 동서간의 냉전, 한국의 분단...,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체코 한국학이 북한과 소련의 한국학에 의존..., 1968년 '프라하의 봄' 이후 서양 한국 학자들과의 접촉, 간접적으로 남한의 과학 서적을 북한 서적으로 교환했던 일..., 1980년 이후에 거의 해마다 AKSE(유럽한국학회)의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 거기서 손님으로 온 유명한 한국 학자, 교수 들의 만남과 토론...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들은 자유화와 민주화에 문을 연 1989년 11월 소위 '벨베트혁명(무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체코와 한국 사이에 1990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상호 교류와 협력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해 가을(바로 10년 전에) 한국학술진흥재단(KRF)과 한글학회 덕분에 드

디어 처음 서울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개월 이상 머무는 동안 여러 대학교의 방문과 강연회, 한글날 행사에 참석, 이전 AKSE 회의에서 알게 된 교수들과 만남, 그리고 또 해인사, 경주, 강화도 기타 역사 문화 유적의 참관, 서울을 비롯한 도시, 마을의 새로운 현대적 모습,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후 외대 교환 교수로도 일했고, 여러 번 각종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자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첫 방문 때야 말로 저는 가장 강한 인상과 저의 연구에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특히 과학 교육 문화 부분에서 발휘한 큰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경탄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 기관과 각 재단, 대학교 등등이 체코를 포함한 세계의 여러 한국학 센터에 제공하는 귀중한 지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이 정책은 세계에서 한국어 보급과 과학 문화의 교류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큰 도움으로 됩니다.

저는 이번 공로상의 수상은 제 개인적으로 했던 일에 대한 재단의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보다 우리 학과 일동이 하고 있는 일, 체코 한국학의 발전과 한국어의 보급에 대한 평가로 여깁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영광이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 높은 평가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능한 남은 여생에도 한국학과 한국어 연구 보급을 발전시키고 상호 교류와 양국 국민들 사이의 이해감과 친선 관계의 강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동승학술재단의 공로상을 수상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김민수 이사장님과 재단의 전체 임원,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께 건강과 한국어와 한글 문화를 연구 발전시키는 일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빛나는 성공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콘체비치 (L. Kontsevich) (러시아)

50년 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연구에 자기 신명

을 다하여 그 선택에 환멸을 한번도 느끼지 않은 본인은 동승학술재단이 이 권위 있는 공로상을 수여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의 일생에서 아주 큰 영광으로 봅니다.

위풍 있는 한국어 학자들을 대표하는 동승학술재단은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의 학자들 가운데서 바로 러시아 한국어 학자를 1999년 공로상 수상자로 처음으로 선정한 것이 뜻깊은 징표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개인 업적을 승인한 것만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일하고 있는 러시아 과학원 동방연구소와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직속 한국학국제학술센터의 과학적 활동에 대한 높은 평가이며, 그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Griogory Podstavin(1875-1924), Evgeny Polivanov(1892-1938), Alexandr Kholodovich(1906-1977), Yuri Mazur(1924-1998), Leonid Nikol'sky(1924-1997) 등등 기타 유명한 한국학자들을 언어학에 등장시킨 러시아 한국학계의 공훈을 전세계에 널리 천명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국립 기관이 아니라 한국 언어학 발달에 있어서 탁월한 개척자이신 若泉 김민수 명예교수님이 교육과 학문적 활동에서 근면으로 축적하시어 자기의 재산을 사치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전액을 헌납하셔서 세우신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이 이 공로상을 수여하는 사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김민수 교수님과 같은 고결한 인물은 현세상에서 극히 드물습니다. 천지 성령은 김민수 교수와 그의 제자들한테 국내외에서 한국 언어학 발전을 변명시키기 위한 노력에 막대한 건강과 체력을 더욱 강건하게 충만시키리라고 믿습니다.

이 경축할 시상식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커다란 감사의 뜻을 재삼 표하는 바입니다.

宣德五 (中國)

저는 중국인으로서 1951년부터 북경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40여년 동안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을 양성하고 중국어 학계에 한국어의

언어적 특점과 한국어 학술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데 자기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평생을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학에 몸 바쳤다고 할 수 있으나 두드러진 성과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 3월달에 순천향대학교 이원직 교수로부터 저를 1999년도 동승학술상(공로상)의 수상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는 반가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원직 교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 대상으로 되는 「조선어 기초 문법」을 부쳐 드렸습니다. 이 저서는 한국어를 20여년 동안 강의한 저의 강의 경험과 중국 학생들의 한국어를 배우는 특점과 난점에 근거하여 상용적인 일상용어를 예로 들어 체계적으로 한국어의 문법적 특질을 논술한 것입니다. 이 저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봉착되는 구체적인 곤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 독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참고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국어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4일 재단법인 동승학술재단으로부터 1999년도 동승학술상(공로상) 수상자로 본인이 선정되었다는 기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상의 영광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큰 기여나 업적이 별로 없어서 몹시 황송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번 동승학술상(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저 개인에게 무상의 영광으로 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계에서 중국의 한국어 학자에 대한 고무(交質)를 나타내는 것이며, 중, 한 두 나라 어학자들의 친선과 우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중, 한 두 나라가 수교된 이래 중국의 한국어 학자가 한국어 학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개인을 놓고 보면 若泉 金敏洙 교수님의 고무 격려와 편달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저는 한국의 학자들에게, 그리고 若泉 金敏洙 교수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저 개인에게 고무와 편달이기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앞으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연구 사업의 발전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아낌없이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1999년 8월 12일)

**최윤갑(崔允甲) (中國)**

조선이 해방되고 조선의 남과 북이 갈라져 조선의 남과 북의 모든 래왕이 단절되고 언어규범이 달라짐에 따라 통일된 조선어는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의 조선어는 그 규범에 있어서 대체로 조선을 따랐으나 나라가 다르고 언어환경이 다름에 따라 조선과 완전히 일치될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어에는 중국, 조선, 한국에서 하나의 통일된 규범이 작용할수 없게 되었다.

중국이 대외로 개방하고 한국, 조선과의 거리가 빈번하여짐에 따라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조선어의 차이를 직감으로 느끼고 이 차이의 실태를 알려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조선어의 통일의 방도를 찾고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려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비단 조선어의 차이를 알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하게는 조선어의 통일의 방도를 애써 찾고있는 지성인들에게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중국, 조선, 한국에서의 조선어 차이에 대한 연구》 머리말 중에서)

**김동준(金東俊) (日本)**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뜻밖에 면식이 없는 분으로부터 國際 郵便物을 받고, 의아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개봉하였습니다. 사연인즉, 보내주신 분의 자기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저를 東崇學術賞(功勞賞 部分) 受賞 候補者로 推薦 하시겠다는 정중한 사연이었습니다. 잘못 온 편지가 아닌가 하고 두 번 세 번 읽어 보았습니다. 候補者로 推薦되는 것이니까 受賞者로 選定되지는 않으려니 했지만, 사회적으로 저명한 職銜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授賞 候補者로 추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榮光스러운 일이며, 기쁘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 후 受賞者로 결정됐다는 通知書를 받고, 송구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얽히어 感慨無量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걸어 온 海外에서의 國語教育에 대하여 國內의 專門 學術財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는 것은 國家賞勳보다도 意義 있고 영광스러운 일

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까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財團 理事長님을 비롯하여 재단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저는 韓日 國交正常化 이전인 1961년, 정부 파견 교육 공무원으로 도일한 것이 契機가 되어 오늘날까지 일본에 머물게 되었으며,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日本放送協會(NHK)의 TV와 라디오 韓國語 講座는 韓國語 普及과 한국에 대한 認識 改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後, 日本社會의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韓國語學科가 있는 5개 대학교 以外에 일반 大學校에서도 6-7割이 韓國語를 正規科目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韓國語를 教育하고 있는 高等學校도 백 수십 교에 달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日本語를 學習하고 있는 人口와 일본에서 韓國語를 學習하고 있는 人口를 비교하면 天地의 差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지역의 民族教育을 위해서는 상당한 財政과 人的支援을 해 오고 있으나, 國際友好 協力關係 促進에 永續적이고 效果的인 한국어 普及과 韓國語學 연구에 대해서는 支援이 거의 없습니다. 새 시대에 알맞은 國際關係를 갖기 위해 新鮮한 시각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일본에는 수십만 명의 학습자가 있으나 한국어 教師 養成機關이나 團體가 없으므로, 유능한 교사가 부족한 것이 당면 문제로 浮上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교육이 外國語教育으로서 겨우 市民權을 獲得했다고는 하나 歐美語와 對等한 지위에 이르기에는 아직 먼길이 남아 있습니다. 東崇學術財團은 이러한 먼길의 나침반이 되고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에서 兩國社會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부일지라도 신속히 把握하여 적절히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의 구실을 할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받는 東崇學術賞(功勞賞 部分)은 저 한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고 일본의 同僚와 後進들의 영광이며, 힘이 될 것입니다.

더욱 精進하여 東崇學術賞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힘쓸 각오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우메다 히로유키(梅田博之) (日本)**

이번 동승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김민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 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내가 한국어 연구를 하고자 한 것이 대학 3학년 때인 1952년, 즉 교양과정을 마치고 언어학과에 진학한 때이니 벌써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명치시대 이후 여전히 서구 편중의 문화 수용에 급급하기만 했던 당시 풍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역사적으로도 또한 현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당시 한국은 6.25 동란중이었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등한시되었던 나라 한국,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한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여서 한국어를 선택한 것이다.

당시 동경대학 언어학과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고즈 하루시게(高津春繁) 교수님(인구어 비교언어학)의 소개로 고노 로구로(河野六郎)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당시 핫토리 시로(服部四郎) 선생님은 미국에 가 계셨다). 고노 선생님께서부터는 한국어학, 중국음운학, 언어학에 관한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았다. Harvard Yenching Institute의 New Program에 의해 1967년 2월부터 1969년 2월까지 한국에 체재하며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고노 선생님의 추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2년 동안의 한국 유학은 여러 면에서 수확이 많았다. 이렇게 고노 선생님께는 여러 가지로 은혜를 입었다. 고노 선생님께서부터 나는 학문의 방법, 연구자로서의 태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배웠다. 고노 선생님께서는 애석하게도 작년 10월 7일 심부전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고노 선생님이 돌아가기 전인 작년 여름의 어느 날, 김민수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다. 지금 동경에 와 계시다고 하셔서 서둘러 호텔에 가서 보니 최근에 신변을 정리하시다 보니 고노 선생님이 주석을 다신 「월인석보」 청사신이 나왔다는 것이다.

옛날 서울대 연구실에 남아 있던 것인데 그것을 일  
부러 가져오신 것이다. 고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  
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만나 볼 수 없으니 나에  
게 당신이 보관하다가 선생님께 전해드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니 고노 선생님의 단정한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고 김민수 선생님은 즉석에서 여  
백에 경위를 발문으로 쓰시고 일본의 한국어연구사  
에 있어서 보물이라 하시며 나에게 건네 주셨다.

김민수 선생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1967년에서  
1969년까지 내가 서울에 유학 가 있었을 때였다. 전  
부터 「주해 훈민정음」과 「국어문법론」 등으로 선생  
님 명성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 고명하신 선생  
님의 권유로 종로 2가에 있는 다방 등에서 여러 가지  
말씀과 가르침을 받았다. 때로는 인사동을 함께 걷  
기도 했는데 아마 선생님은 잊어 버리셨으리라 생  
각되지만 나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즐거웠던 추  
억이다. 그 후 오랫동안 뵈지 못했는데 고려대학교  
와 중국 연변대학 등에서 열린 이중언어학회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많은 가르  
침을 받았다. 김민수 선생님 또한 나의 한국어 연구  
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시다.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한국어 연구 과정에서는  
나는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고노 선생님과 김민수 선생님 두 분의 가  
르침이 없었다면 나의 한국어 연구는 없었을 것이  
며 따라서 이번 수상 또한 훌륭하신 두 분의 덕분이  
기에 이 글로나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99. 8. 25.)

### 특별 강연

#### 체코에서의 한국어 교육 발전과 한글 문화의 보급

푸체크 (Vladimír PUCEK)  
(Charles University, 체코공화국)

- 1. 한국학과의 설립과 그 발전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오늘날 체코공화국에서 한국학의 교육, 연구를 보

장하는 유일한 부서는 작년에 창립 650돌을 맞이한,  
유구한 까렐대학교(Charles University, 체코어로  
Univerzita Karlova, 약칭 UK) 철학대학(인문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이다.  
이 부서는 동양학과 관계 있는 5개 연구소 중의 하  
나이다. 여기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지역학 연구  
가 반세기쯤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 대학교 철학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양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아라비아어, 페르시아  
어, 히브리어, 고대 이집트어, 아시리아어, 히타이트  
어, 인도학 등의 분야에서는 많은 업적들이 이루어  
져 왔다. 그렇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극동지역 국  
가들의 언어와 문화 연구는 그보다 좀 늦게 19세기  
후반기에 시작되었다. 20세기 40년대에 이르러 중국  
학의 본격적인 발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의 연구도  
시작되어 해당 전공이 확립되었다. 현재 본 연구소  
에 중국, 일본, 한국, 몽고, 베트남 등 학과들이 있고  
또 희망자들이 선택 과목으로 티베트어 강의까지  
들 수 있다.

우리 한국학과는 1950년에 Alois PULTR(1906-  
1992)에 의하여 설립되고 한국학이 처음부터 독립적  
인 정규 전공(major subject)으로 등록되었다. 물론  
첫 시기에 새로 생긴 학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  
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교수와 자료의 부족 이외  
도 사상과 정치적 제한이 많았다. 설립 전후 시기에  
한국학의 발전에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요인과 객관  
적 전제 조건이 존재하였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손꼽으면 다음과 같다:

- 대학교에서의 동양학 전통, 사회계의 동양 문화  
에 관심.
- 1948년 2월 사변(노동계급의 승리) 이후 그 당시  
의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이 공산당의 정권하에  
사회주의 국가로 되면서 소련 지배권에 속했음.
- 체코와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1948), 북한과  
의 교류 강화, 체코가 북한 전후 복구 건설에 적  
극 지원.
- 북한의 언어, 사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수요 급증,  
그들의 교육 양성 필요성.
- 국내에 체류하는 북한 고아, 유학생, 기술자들과

의 접촉 가능성.

- 한국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북한에서 실습할 가  
능성, 졸업생의 취직 가능성.

그 당시의 객관적 조건(특히 동서간의 냉전, 한국의  
분단 등등)과 국제 관계의 악화와 불리한 상태로  
말미암아 한국학을 전방적으로, 다방면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매우 제한되었다. 그 당시  
서양의 각 한국학 연구 센터와의 접촉이 아주 미약  
하고 한국과의 직접적 연결을 전혀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북한과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는 소련의 한  
국학 자료에 적지 않게 의존하였다. 그 당시에도 우  
리가 일정한 업적도 이룩했지만 약점이 더 많았다.  
비유를 하자면 그 당시의 우리 한국학의 시야는 애  
꾸눈과 같았다. 나는 이 시기를 우리 한국학 발전의  
첫 단계로 보아야 하겠다.

그래도 우리와 우리 학생들이 북한 방문시에 체  
험했던 것도 어느 점에서 유익하였다고 본다. 북한  
에 가서 언어 실습과 자료 수집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지 사정, 국민들의 성질과 심리, 문화의 특  
징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분단의 참사를 인식하  
여 한국에 대한 동정과 이해심이 더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대체로 공부 대상으로 된 나  
라, 언어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한 관심, 높은 열  
의,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우의 관계 등이 없고서  
동양학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나라를 사랑  
하지 않으면 공부 가 자주 실패로 끝난다. 솔직히 말  
하면 그 당시 한국학을 하자는 우리들의 굳은 다짐  
이유는 북한의 정치 사회 제도 형태에 대한 경탄이  
나 북한의 선전에 설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  
다 전반적으로 한국 민족에 대한 동정(sympathy),  
그들의 인간 가치, 슬기로움, 정직성, 헌신성, 고유한  
문화의 가치, 산천의 아름다움, 우리 나라 역사와의  
유사성 등등 때문에(북한 사상, 정치적 분위기와 관  
계 없이) 한국이 정말 연구할 만한 나라라는 인식에  
서 나온 것일 것 같다.

실지 한국학 어떤 전문가가 북한의 형편, 사상과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더 깊이 알수록 남한의 상  
황과 그의 우월성도 더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는지도 모르겠다.

1968년 '프라하의 봄' 사건 전후에 우리 나라의  
정치 제도 개편과 민주화를 지향하는 경향과 대중  
적 운동이 외세의 진압에 의하여 분쇄됐다. 뒤이어  
당국은 소위 '정상화'라는 정책을 선포하여 공산당  
의 정권을 다시 회복, 강화했다.

그 정책의 일환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접촉과 교  
류를 엄격히 감시, 제한하는 데 있었다. 그래도 그  
시기에 우리는 이미 서양의 한국학 학자와의 교류  
에 성공하여 개별적 인사와 서유럽 일부 대학교  
(London, Paris 등)를 통해서 남한의 과학 서적, 교육  
자료, 경우에 따라 한국 신문까지 구하곤 하였다.  
(소포에 한국 우표만 붙여 있지 않았을 경우 내부  
검열 기관을 통해서 별 문제 없이 보통 통과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관계와 도서  
기지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갔다.

또한 80년대부터 우리들이 거의 해마다 서유럽에  
서의 AKSE(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유럽한국학회, 지역 국제 기구) 국제 학술 대회에  
참가하여 매우 유익한 접촉도 하고 사회주의 국가  
들과 서양에서의 한국학 수준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대회에서는 또한 미국, 일본, 특  
히 한국에서 온 권위 있는 학자들을 만나 많은 경험  
과 자료를 얻을 기회를 가졌다. 나는 한국과 한국학  
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인 시야를 더 넓게 한 이 시  
기를 우리 한국학 발전의 제2 단계라고 하겠다.

우리가 이와 같은 교류를 효과 있게 이용할 수 있  
기 위해서 AKSE의 이해와 도움 이외 특히 KOREA  
RESEARCH FOUNDATION 측에서 받는 지원이  
큰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학에 그보다 더 기본적인 변  
화는 1989년 11월에 우리 국민 앞에 자유화, 민주화,  
경제 개혁 등을 위한 길을 개방한 '무혈 혁명' 이래  
일어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자유롭게 한국을 비  
롯한 세계 나라와의 접촉을 하고 교류와 상호 협력  
의 분야가 훨씬 확대되었다. 이 시기는 체코 한국학  
발전의 제3 단계의 시초라고 하겠다.

#### 2. 체코 한국학의 학제와 교과 과정안 특징

##### ◆ 학제와 졸업 시험

우리 대학의 학제는 5년제이고 교육은 아직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보장되어 있다. 수강의 기간은 10개의 학기로 나뉘어져 있으며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늦어도 7년만에 졸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4학년 말까지 '소국가 시험'이라고 불리는 '진학 시험'을 심의회 앞에서 치르고 약 40쪽 정도의 리포트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시험은 다른 나라의 학사(B.A.)급 시험과 유사하다고 보겠다.

5년간의 교과 과정을 다 이수하면 국가 심의회(교수 3-4명)가 주관하는 국가 졸업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한국학과에서의 시험 내용은 (1) 졸업 논문의 심사, (2) 철학(동양 철학), (3) 한국어(실무, 이론), (4) 한국사, (5) 한국 문학사 등이다. 통과하면 Magister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그것은 M.A. 또는 한국의 석사와 동일한 것이라 하겠다.

◆ 연수의 2가지 형태

1990년 후 각 학과의 신장된 자주성으로 교과 과정을 더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개편할 수 있었다. 현재 수강의 형태는 (a) 복수 전공 (b) 또는 단일 전공을 등록하는 2가지 체계이다. 복수 전공(2가지 학과)이라는 것은 한국학 이외 또 다른 한 전공을 등록하는 것인데 이전에 학생들은 제2 전공으로 자주 러시아어, 영어, 세계사, 극동 역사, 일본어, 서지학 등등을 선택했지만 최근년에 와서 정치학, 영어, 일본어, 민속학 등을 등록하는 추세가 보인다. 졸업 논문은 다만 한 학과에서만 작성한다.

단일 전공이라는 것은 한국학만 공부하는 체계이다. 이 경우에는 한자와 회화, 번역, 통역 연습에 할애하는 시간 수 증강, 제2 동양 언어(기초), 한국어 역사까지 과정에 도입되었다. 이 형태의 장점은 한국학의 공부를 더욱 집약, 심화할 수 있지만 다른 편에 전공 하나만 가지면 취직에 있어서 애로가 있을 수 있는 어려움도 있다. 그래도 최근 신입생의 대부분은 바로 단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이다.

◆ 입학 시험

입학 시험의 방법과 내용을 각 학과에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 때에 우리 학과 교수(보통 3명)로 구성된 입학 시험 심의회는 신청자들이 선택한 전공(즉 한국학)에 대한 능력과 관심 정도, 외국어 실력 정도, 한국에 대한 지식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고등 학교의 성적을 참고로만 고려하거나 혹은 무시할 수도 있다. 한국과 일반 지식에 대한 테스트, 한국어 주제로 된 essay, 선택된 외국어 실력 등 내용으로 된 필답 시험을 통과하면 심의회와의 interview를 진행한다. 그 때에 신청자가 제출한 목록에 따라 자기가 한국(동양)에 대한 서적, 예술문학 번역, 기타 자료의 자독, 자습 정도를 검토하고 한국학을 공부하자는 motivation을 확인한다.

최근에 우리 나라의 일반인들과 고등학생 중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훨씬 좋아져 가고 있고 그 전에 비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내부의 여러 조건을 고려해서 격년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 금년에 30명 이상된 신청자들 중에서 13명을 입학시켰다. 따라서 9월부터 시작되는 1999/2000 신학년에 총 학생수가 기록적인 34명에 달한다. (1학년 13명, 3학년 15명, 5학년 6명)

교육은 한국학과 3명의 체코 교수와 1명의 교환교수(한국인)가 담당하고 경우에 따라 시간 강사까지 단기적으로 강의를 하기도 한다.

◆ 현 교과 과정안 (단일 전공에 한함)

한국학의 골격은 한국어의 교육이다. 5년간 이에 할애하는 총 시간수는 약 1500 시간 이상 되고 복수 전공인 경우에 약 1000시간이다. 주요 과목으로서 한국어 성음학(한글 쓰기 포함, 1학년, 30 시간), 한국학 입문(어문, 1학년, 60), 한국어 문법 체계(1-2학년, 120), 언어 세미나(2학년, 60), 한자 입문(2학년, 60), 한국어 어휘론(3학년, 60), 한국어 문체론(4학년, 60), 한국어사 입문(15세기부터, 4학년, 60), 각종 강독(1-5학년, 360), 한국어 회화, 연습(1-5학년, 480)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 일반 언어학 개론, 한국의 현사정, 한국사 개관, 한국 문학사 개관, 동양 철학, 각종 세미나, 특강 등을 수강한다(총 약 600시간). 인정하여야 할 약점은 한자 교육인데 그것은 첫 시기에 북한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고 보겠다.

3. 교과서와 교재의 작성

우리 학과에서는 처음부터 교과서와 교재의 집필에 대한 주의를 돌려왔다. 이 때까지 우리 교수들이 작성하고 단행본(체코어 판)으로 인쇄한 교과서, 참

고서 수는 총 14 종이다. (부류에 따라 한국의 지리, 현 정세, 경제 등 3 종, 한국 문학사 2 종, 한국어 부문 9 종)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우리는 남한,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교과서를 효과 있게 사용해 왔다. 하지만 우리의 과정에 맞지 않고 내용, 형식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외국 교재의 대부분은 영어나 다른 외국어 대비를 기초로 하여 문법, 어휘를 설명함으로써 일정한 애로를 느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한국 언어 생활의 급격한 발전, 변화로 말미암아 첫 시기에 우리들이 쓴 저서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또는 북한의 어휘, 언어 규범('문화어')에 심히 의존되어서 그것을 기본 교재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우리의 내부 역량이 모자라도 기본 과목에 필요한 일부 교과서라도 점차적으로 체코말로 집필해 보자는 계획을 세웠다. 우리의 교과 과정에 알맞고 모국어인 체코어와 대비하고 신입생들의 일반 언어 지식을 고려하면서 설명을 하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이 때까지 우리 학과에서 낸 교과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Pultr, A.: 한국어 교과서, 1954 (279 pp.) (독어판 1958, 1960)
2. Winkelhöferová V., Pucek, V.: 일본어, 한국어 신문, 잡지 독본, 1970 (246 pp.)
3. Vochala J., Novák M., Pucek V.: 중국, 일본, 한국의 문자 입문 (1권-발생과 발전, 2권-실무 연습), 1975 (175+250 pp., 한글 부문 1권 97-131, 2권 213-245 pp.)
4. Pultr, A.: 한국어 문법 I.(어음론, 형태론), 1978 (234 pp.):
5. Pucek, V.: 현대 한국어의 기초 과정, 1980 (259 pp.)
6. \_\_\_\_\_ : 한국학 입문 (어문편), 1982 (195 pp.)
7. \_\_\_\_\_ : 한국어의 기초, 1983 (110 pp.)
8. \_\_\_\_\_ : 한국어 문법 II. (통사론), 1986 (213 pp.)
9. \_\_\_\_\_ : 한국어 어휘론, 1997 (229 pp.).

참조: Korea in Czechoslovakia (Czech Republic -

BIBLIOGRAPHY, Praha 1995.

Vladimír Pucek Bibliography (1954-1998), Praha 1999; Pucek, V.: *까렐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교과서의 작성*, In: 세종 탄신 600 돌 기념 제 6회 국제 한국어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글 학회 1997, 265-280 pp.

본인과 M. Bušková 교수가 현재 작성중에 있는 참고서 「한국의 언어 정책」은 마감 단계에 들어와 있다(출판 예정: 1999년말, 약 240쪽). 이 책은 한국 문자 체계의 역사적 개관 이외 현행 남한의 언어 규범을 세밀하게 서술하고 남북 언어 생활과 언어 정책의 대비를 내용으로 된 저서이다. 우리 학과에서 80년대 말까지 대체로 북한 언어 규범에 따라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참고서의 필연성을 느꼈다. 또한 한국어의 '이질화'와 언어 순화(purification)와 같은 현상의 분석은 학생들 뿐 아니라 이론적 면에서 우리 나라 일반 언어 학자들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망적으로 보면 앞으로 특히 「한국어 표준 문법」을 새로 집필해야 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고 또 「한국어사 개관」, 어휘적, 문법적 주해를 단 「고전문학 독본」과 같은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작업에 한국 교환 교수들도 참가하여 협력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4. 한글 문화의 소개와 보급

체코의 동양 학자들이 연구와 교육 이외에 또한 동양의 대표적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국내 독자에게 보급한 일을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는 것은 예전부터 좋은 전통으로 되어 왔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활동을 자기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가 몇 명밖에 안되고 또 인구 천만밖에 안된 체코와 같은 작은 나라의 좁은 시장에서 동양 문학 작품을 번역 출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일정한 업적이 이룩되었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한국 예술문학 작품의 번역(체코어, 부분적으로 슬로바키아어 판) 목록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장편 소설, 단편 소설집 11 종 (그 중 고전문학 5, 현대문학 6)